

# 光山新龍里五層石塔 舍利具

成 春 慶

I

光山郡 新龍里五層石塔을 처음 확인한 것은 一九七九年 여름 郡文化公報室에 근무하는 金丁鎭氏의 제보에 의해서였다.①

당시 이 石塔은 文化財資料(그때는 文化財以外的 文化財라 하였음)에도 누락되어 있었고, 다만 文化遺蹟總覽(七七, 文化財管理局發刊)에 간략하게 소개되었을 뿐이었다. 김씨의 말에 의하면, 어느 재력있는 사람이 자기집 정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인부를 동원하여 몇번이나 이전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현지에서 본 이 石塔은 二重基壇인 五層石塔으로, 下臺底石一部와 上層基壇 兩面의 面石 二매가 유실되었을뿐, 다른 部材는 完전한 高麗時代 石塔이었다. (圖版 一〇二) 다행스럽게도 이 石塔은 金丁鎭氏의 文化財를 아끼는 열의와 또 이를 뒷받침해주었던 光山군 文化院長 申車幸宜氏의 성원에 의해 郡費가 확보되어 一九八一年 九月初에 復元하게 되었는데, 이때 朴元公사중 一층탑신에서 뜻밖의 金銅舍利具가 발견되어 우리나라 石塔 舍利藏置에 대한 새로운 한 예를 더하게 되었다. ② 그리고 이 石塔은 그 이듬해인 一九八二年 地方有形文化財 제九八호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 II, 位置 및 環境

이 石塔이 위치한 곳은 光山郡 林谷面 新龍里로서, 松汀邑에서 철길을 따라 약 二二km 떨어진 북쪽이며, 光州市에서는 二〇km 쯤 되는 거리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松汀邑 보다는 오히려 長城郡 南面に 인접해 있고 林谷面 소재지에서는 약 二km 남방에 있다.

주변 산세를 보면 비교적 野山을 이루고 있는데, 石塔이 위치한 뒷편으로는 해발 一五〇m 쯤 되는 樂菴山이 둘러져 있고, 前方으로는 멀리 光州 無等山과 그 앞에 魚登山이 보이며, 가까이로는 낮으나 막한 八郎山이 시야에 들어온다. 탑이 위치한 마을은 新龍里 新村으로 一名「새말」이라 부르기도 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탐동」 또는 「탐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 塔은 新村마을에서 북쪽으로 二〇〇~三〇〇m 떨어진 독립가옥 바로 뒤에 있는데, 이 집 주인인 奇夏錫(당시 五四세)씨 소유 田 一九七번지 채소밭에 위치하고 있다. 石塔 주위로는 바로 왼편 三m 지점에 石佛立像 一구와 약 五〇〇여평 되는 대밭이 형성되어 있고, 채소밭 머리 맨 뒷쪽으로는 奇氏의 五代祖墓 二基가 자리하고 있다. 이 墓가 奇氏의 先代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전언으로 보아 대략 一五〇여年 前的 墓로 추측되며, 적어도 이 가람은 奇氏의 墓를 쓰기 이전에 이미 廢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준다.

이 石塔은 위에서 보다시피 基단부 面石 二매와 下臺底石 一部가 파손된 상태인바, 그 파손된 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마을에 사는 奇內燮(당시 六四세)氏의 말에 의하면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에도 이런 상태였다고 하니, 이 塔이 파손된 시기는 日帝初期의 전후로 여겨진다.

塔의 외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圖版三) 二重基壇에 옥개석과 塔身이 각 一석씩인 五층석탑으로, 上·下基壇에 甕柱 一주, 各面에는 兩隅柱

를 模刻하였으며, 上·下臺에도 甲石을 栽植하였는데 下臺甲石은 약간 두꺼운 편이다. 塔身部에도 塔身 四面에 兩隅柱를 세우고 屋蓋石 上面의 二층까지는 塹은 一단의 괴임을 나타냈으나 三층 이상부터는 생략되었다. 층급받침은 一층에서 三층까지는 四단이다가 四층 이상부터는 三단으로 줄어들었다. 相輪部의 露盤과 寶珠는 後補葺음인지 色感이 다르게 보이고 있다. 石質은 매우 단단한 양질의 화강암으로, 樂菴山이나 또는 이 일대의 가까운 지역에는 이러한 좋은 塔材가 될만한 岩石이 보이지 않은 點을 보면, 이 塔材들은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것으로 여겨지며, 역시 塔의 造成年代는 高麗時代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舍利具를 藏置한 위와 같은 石塔의 造成背景등으로 미루어 보아, 옛날에는 상당한 寺格을 갖춘 가람이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으나, 이에 대한 文獻上의 資料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寺刹의 沿革을 알길이 없다. 다만 文化遺蹟總覽에 의하면 「新羅말엽에 山水가 좋아 이곳 절을 짓고 五층석탑을 쌓아 佛敎를 진도해 왔는데, 절에 빈대가 많아 절을 태워버리고 順天방면으로 옮겨갔다.」고 記錄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 樂菴山 어느 곳이나 墓를 쓰기위해 흙을 파보면 古瓦片이나 靑磁片 등이 많이 나온다고 전해준다. 그리고 보면 이 石塔이 위치한 가람 외에도 소속 암자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Ⅲ、石塔의 復元과 發見遺物

#### 一、復元경위

新龍里五層石塔의 復元工事는 완전히 郡 자체적으로 작업 실시하였다. 公사는 내양건설 문화재부에서 담당하였고, 당시의 공사비는 一백六〇만원이었다. 이 塔의 復元은 원칙적으로 먼저 결실된 塔의 石材를 새로 補完키로 하고, 이 새로운 石材를 삽입키 위해서는 塔 전체를 해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 補完키로 한 石材는 均열이 심하여 도저히 原形再

現이 불가능한 下臺底石 一매와 下臺甲石 일부 및 基壇部 面石(東西쪽) 二매였다.

基壇部 構造를 보면 南北(石塔의 正面은 正南에서 一〇.쯤 동쪽을 향하고 있음)에 걸친 하대석은 양편이 二〇八cm이고, 東西에 걸친 하대석은 모두 같은 규모의 一六〇cm 길이였다. 그런데 하대석과 中石이 모두 一石으로 되었기 때문에 新材品도 역시 똑같은 一六〇cm의 一石으로 제작하였다. 절구수법은 엷물림이 아닌 삽입식이고, 이러한 절구는 上層基壇의 面石에서도 同一式이었다.

다음 基壇部 面石(上臺中石)은 四매 중 東西에 걸친 두매의 面石을 新材로 삽입하였는바, 南北의 면석(기존)의 폭은 一二二cm, 높이는 八〇cm이며 東西에 걸친 면석(新材)의 폭은 八五cm, 높이는 역시 八〇cm였다. 工事는 一九八一年 九月八일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작업까지 一〇여일에 걸쳐 완료 되었는데, 우선 塔의 전체를 해체하기 위해서 chain-block을 동원, 相輪部부터 끌어내렸다. 상륜부 寶珠 높이는 全高 二六cm, 球部 직경 一八cm이며, 下半部는 圓柱로 되어 露盤의 擦柱孔을 통과하였다.

塔 전체의 해체를 마친후, 基壇部 下部構造를 파악하기 위해 地臺石 ③이 맞닿은 地盤상태를 살피 보았으나 특별한 工法은 엷볼 수 없고, 지대석 밑으로 版築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위로 최대 길이 五八(六六cm, 폭 三三) 四七cm 되는 自然石을 지대석 兩面 밑으로 두개씩 배치하여 塔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塔의 해체작업 후 지대석을 재결합 할 때에는, 옛 기법을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 시멘트 공법을 쓰지 않고 版築土層 위에 自然石을 그대로 두고(圖版四) 새로 新材한 지대석과 面石, 그리고 塔身部를 순서에 의해 절구해 올라갔다. 참고로 당시 塔의 各部材別實測值를 보면 〈별표〉와 같다.

#### 二、發見遺物

舍利具는 一층탑신 上面中央에서 發見되었다. 一층탑신을 내리는 순

간 홈면지가 가득 쌓인 한변의 길이 一八cm 되는 正方形의 舍利孔을 확  
인하고, 필자는 같이 참여한 金丁鎮氏와 함께 현존 상태(圖版五)를 촬  
영한 뒤, 홈면지가 쌓인 舍利孔 내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金銅舍利函  
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웬 일인지 사리함 뚜껑이 열려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다시 뚜껑이 열려진 채 홈면지④가 가득히 들어있는 사  
리함의 내부를 들어내면서 살펴본 즉 그 속에서 金銅舍利瓶과 그 部材  
를 알 수 없는 金銅蓮花片 두 점이 發見되었다.(圖版六)

다음 사리공내 전체의 홈모래를 서서히 꺼내면서 기타 다른 유물의  
有無를 살펴 보았으나 舍利는 없고 부식이 심한 小形木塔(圖版七) 및  
基와 竹片八點(圖版八)이 수습되었다. 舍利孔의 규모는 二段의 角을  
이룬 正方形의 형태인데, 한변의 길이는 一八cm, 총길이는 一四cm이며,  
下段孔의 한변 길이는 九cm였다.(圖版九) 위에서 수습된 遺物의 규격과  
현상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一) 金銅舍利函…總高 九cm(뚜껑포함), 너비 六, 五cm, 두께(厚) 五cm  
로 鍍金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직육면체로서 편평하며 다른 장식  
이 없고 뚜껑 한쪽 모서리에 均열이 있다. 內外부에 銘文이 없다.

(二) 金銅舍利瓶…總高 六, 五cm, 身部중: 직경 二, 七cm이다. 일부  
에서 鍍金이 벗겨져 부식된 부분이 보이며, 모양은 굽이 달린 花瓶形으  
로 맨 위에 둥근 寶珠形 꼭지가 달려 있다. 목이 細長한 편이며, 肩部  
로 내려오다 一條의 띠를 들렀고 역시 身部中央에서 一條의 음각 띠를  
들렀는데 均열이 가 완전히 上下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三) 金銅蓮花片…이 蓮花片은 二點인데, 이중 하나는 蓮花形이긴 하  
나 辨端에 예리한 花葉이 돌출해 있으며, 또 下端部에서 花葉이 안보이  
는 바, 원래 화열이 있었던 것인데 떨어져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식품에 부착되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직경 四, 五cm) 鍍金이  
완전히 부식되어 青色을 띄고 있다. 다른 한 점은 蓮花形이라기 보다는  
나팔꽃 모양과 같다.(직경 三, 七cm) 上端 돌출부분 중앙에 홈이 파진 것  
은 다른 장식품이 부착된 자국인 듯 하나 알 수가 없다. 鍍金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부식이 심한 편이다.

(四) 小形木塔…이 小形木塔은 모두 부식이 심한 편으로, 비교적 完形  
을 갖추고 있는 七基가 수습되었다.⑤ 이들 小形木塔들의 규모와 형식  
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五層木塔(圖版七, 맨왼쪽)…全高 三, 二cm, 下端폭 一cm로 三층이  
상은 체감되었고 전체 모양은 方形이나 약간 굽은 상태이며, 背面은 오  
랜 기간 동안 부식되면서 모서리가 흐트러져 있다.

② 五層木塔(圖版七, 왼쪽에서 두번째)…七기중 보존상태가 제일 좋  
은 편이나 塔身部가 굽었다. 全高 三, 七cm, 하단폭 一cm로 方形이다.  
기단부 면석이 조식되었으나 隅柱가 表出되지 않았다. 一층답신이 선명  
하며 그 이상에서의 체감은 보이거나 물매가 명확치 않다. 상륜부에서 노  
반과 찰주형이 약간 솟아 있고 背面에서는 부식이 심하여 층수의 형태  
를 알아볼 수가 없다.

③ 五層木塔(圖版七, 왼쪽에서 세번째)…全高 二, 七cm, 하단폭 〇,  
五cm로 답신과 옥개석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나 三층 이상은 체감되었  
다. 전체 모습은 方形이며 상륜부에 찰주형이 예리하게 솟아 있다.

④ 五層木塔(圖版七, 中央)…七基中 제일 높은 塔으로 全高 四, 七cm,  
하단폭은 〇, 五cm이다. 方形이긴 하나 四면 모서리가 선명하지 않고 塔  
形으로 보기에 너무 거리가 멀다.

⑤ 木塔片(圖版七, 右측에서 세번째)…全高 三cm, 하단폭 〇, 六cm 이  
다. 方形이 아닌 두께(厚) 〇, 一cm 정도 되는 엷은 板木이다. 역시 塔  
形이라 하기에는 모호한데가 있다.

⑥ 五層木塔(圖版七, 우측에서 두번째)…全高 二, 四cm, 하단폭 〇,  
五cm이다. 전체 모양은 方形이며 기단이 약간 나타나고 一층 답신이 긴  
편이다. 그 이상은 체감을 보이며 상륜부는 절단되었는지 보이지 않는  
다. 이 탑은 四면중 一면에서만 층수가 보이며 양면 및 배면에서는 평  
면으로 되었다.

⑦ 木塔片(圖版七, 맨우측)…全高 一, 七cm, 하단폭 〇, 九cm이다. 이 塔

은 원래 五층이었던 것 같은데, 一층 이상은 손괴된 것으로 보인다. 前面에서는 四각 모서리가 보이나 背面은 편평하며 역시 부식이 심한 편이다.

(五) 竹片: 이 竹片들은 모두 八點으로 원장에서 原形 그대로 수습되었다.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크기는 八點 모두 일정하지가 않다. 제일 긴 것은 길이 六、九 cm, 짧은 것은 五 cm 이고, 폭은 一、二 cm, 두께(厚)는 〇、二 cm, 五 cm 이다.

(六) 기타 瓦片 및 靑磁片: 이들 遺物은 모두 塔의 基壇部를 해체하면서 수습된 것으로, 下臺甲石 밑에서 잡석과 더불어 함께 노출된 것이다. 위에서 본 平瓦(圖版一〇)들의 文樣은 굵은 魚骨文과 섬세한 格子文이 시문되었다. 色調는 灰色인데 格子文瓦는 붉은 색을 띄고 있어 불탄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암막새기와(圖版一一)는 周緣部에 두출의 陽刻線을 두고 그 안에 連珠文을 배치하였는데 中央의 문양은 忍冬唐草文으로 그 선이 매우 선명하며 투박하다. 靑磁片(圖版一二)은 象嵌이 시문되지 않은 純靑磁접시이며, 다른 文樣이 보이지 않고 外底部에 三目圭石받침이 엿보인다. 접시 전체에서 氷裂이 좀 심한 편이나 色感은 진한 靑綠色으로 이의 年代는 象嵌靑磁가 發生하기 以前의 純靑磁時期(一世紀? 二世紀초)⑥가 아닌가 한다.

#### IV

이상에서 光山新龍里五層石塔의 復元경위와 復元工事中 발견된 遺物 전반에 걸쳐 살펴 보았다. 여기서 주목된 점은 역시 一층탑신에서 발견된 舍利具와 기타 遺物들로서, 최근 全南地方에서 舍利具의 出現으로서 새로운 例라 하겠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舍利孔內에 있었던 舍利函이 뚜껑이 열려진 채였고, 孔內의 모든 遺物들이 흙모래 속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또 위에서 본 方形舍利函 이외에도 蓮花片을

보면, 이는 다른 장식품에 딸린 것으로 간취되며, 方形舍利函을 內函으로 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外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만하나,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어 차후의 考察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 石塔에서 基壇部가 훼손된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도굴되었던 것을 말하며, 이때 舍利孔 內部の 遺物 일부도 도취해간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石塔의 舍利藏置에서 土製⑦와 石製⑧, 木製⑨ 등의 小形塔이 發見된 例는 적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一九六六年에 발견된 佛國寺 三층석탑의 小形木塔은 一二基로서⑩ 훼손이 심하여 그 형태가 선명하지는 않으나, 그중 一기는 九층탑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이 三층탑인 것인데 반해, 新龍里塔의 경우는 주로 五층탑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 한가지 흥미 있는 것은, 新龍里木塔이 마멸이 심한 木塔片까지 더하면 모두 一二基인바, 불국사의 三층석탑의 例와 同數라는 점이 다. 一九六二年에 조사된 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의 九九基와 一九五七年 八公山桐華寺 金堂庵西三層石塔에서 發見된⑪ 小塔이 비록 土製、石製로서 그 製質은 다르나 모두 九九基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佛國寺의 三層石塔과 新龍里五層石塔의 例에 있어서도 비록 統一新羅와 高麗라는 時代差는 있을지라도 一二基라는 같은 숫자에 있어서, 舍利藏置에 따른 어떤 敎理上의 연관성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끝으로 新龍里五層石塔의 造營年代는 결에 위치한 石佛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일단은 石塔의 양식과 기타 유물 등의 年代로 보아 高麗中期를 下限하지 않을 것 같다. 이 舍利具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필자의 능력으로서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라 하겠다. 보다 더 많은 연구로서 위에서 본 여러가지의 문점에 따른 구체적인 해명을 기대해 본다.

① 이 글은 「錦湖文化」 四月號(一九八五、錦湖文化財團)에 발표된 내용을 添削 보완한 것이다. 당시 발표된 글은 이 石塔의 文化財 指定을 위한 報告書를 참고한 것으로, 그 주변 일대의 遺物·遺蹟까지를 포함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石塔復元 경위와 舍利具에 대해서만 소개하였다.

- ② 당시 發見된 舍利具 일체는 즉시 國立光州博物館에 보관 의뢰하였다.
- ③ 이 塔에서는 地臺石을 別石으로 설치하지 않고 下臺底石을 地臺石으로 겸한 一석구조를 보이고 있다.
- ④ 여기서 「흙먼지라 표현하였으나 발견 당시의 상태를 엄밀히 말한다면, 아주 미세한 모래알과 먼지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塔안에 寶物을 奉安한 경우 法身舍利 대신 깨끗한 모래알을 넣는 예도 있다는 記錄이 있으나(秦弘燮: 「韓國金屬工藝」 一志社 一九八〇, p. 88 및 文明大: 「佛教美術概論」 東國大學校譯經院, 一九八〇, pp. 62~63) 이 新龍里塔 舍利孔의 경우는 舍利函의 두께가 열려 있었을뿐 아니라, 舍利孔 內部 전체에 흙모래가 가득 차 있었으나, 後代에 누군가에 의해 도취하면서 다른 모래알을 집어 넣는 것이지, 아니면 원래 상태머리의 흙모래였던 것이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사리함의 두께가 열려진 채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는 분명 原形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 ⑤ 이 小形木塔들은 현장에서 수습할 당시는 七基外에도 거의 原形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심한 나머지 조각들까지 합하면 五基 정도가 증가되어 木塔은 모두 十二기였다. 한편 식별이 불가능한 직경 1~2cm 내외의 부식된 鐵片 二~三點이 함께 수습되었다.
- ⑥ 진홍섭: 「청자와 백자」 교양북사총서(一九八五) pp. 51~84, 高裕燮: 「高麗靑瓷」三星文化財團(一九八〇) pp. 33~45, 金元龍: 「韓國美術小史」三星文化財團(一九七三) pp. 177~182, 「東洋陶磁の展開」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一九八二) 圖版 및 圖版해설 참조. pp. 56~62 p. 170~174
- ⑦ 黃壽永: 「慶州出土의 土塔」考古美術(上) 通文館(一九七九) pp. 126~127. 및 黃壽永: 「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의 舍利具」美術資料 七號, 國立博物館(一九六三) pp. 5~7.
- ⑧ 金永培: 「公州新豐三層石塔內 發見遺物」考古美術(上) 通文館(一九七九) pp. 430~431. 秦弘燮: 「禪林院址三層石塔內 發見遺物」美術資料 九號, 國立博物館(一九六四) pp. 1~5.
- ⑨ 金禮庚: 「韓國의 美術」(塔篇) 悅話堂(一九八二) p. 69.
- ⑩ 金禮庚 註九의冊 및 「文化財大觀(國寶) 文化財管理局, (一九七七) pp. 264~265 圖版참조.
- ⑪ 黃壽永: 「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의 舍利具」p. 7.

〈별표〉 石塔各部 實測數值

部材名	構成石材數	幅(cm)	높이(cm)	비고
計	二三		五三四、〇	
寶珠	一	一八、〇	一六、〇	
露盤	一	二六、〇	二二、〇	擦柱孔 직경 一六 cm (관통)
五層屋蓋石	一	七四、五	三〇、五	처마두께 五、六 cm
五層塔身石	一	四四、二	九、五	隅柱幅 〇、九 cm
四層屋蓋石	一	九二、五	三三、五	처마두께 六 cm
四層塔身石	一	五五、五	一五、〇	隅柱幅 一〇 cm
三層屋蓋石	一	一一三、〇	三五、七	처마두께 六、二 cm
三層塔身石	一	六二、〇	二四、三	隅柱幅 一一、八 cm
二層屋蓋石	一	一三二、〇	四二、〇	처마두께 六、三 cm
二層塔身石	一	六六、〇	二八、七	隅柱幅 一四、四 cm
一層屋蓋石	一	一四六、〇	四八、三	처마두께 六、五 cm
一層塔身石	一	七九、〇	七六、〇	隅柱幅 一八 cm, 舍利孔 직이 一八 cm, 副이 一四 cm
上臺甲石	一	一四二、五	一八、五	副椽幅 一三三 cm, 副椽 높이 八 cm
上臺中石	四	一一二	八、〇	隅柱幅 一八、五 cm, 面石 二枚 新材
下臺甲石	二	二〇八、〇	一九、五	一部破損部分 新材
下臺中石		二〇〇、〇	二一、五	隅柱幅 一八、五 cm
下臺底石	四	二〇八、〇	一四、〇	下臺底石 一枚 新材



圖版 1. 復元前의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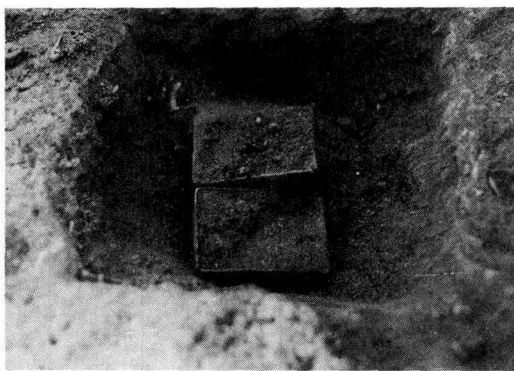
圖版 2. 解體前의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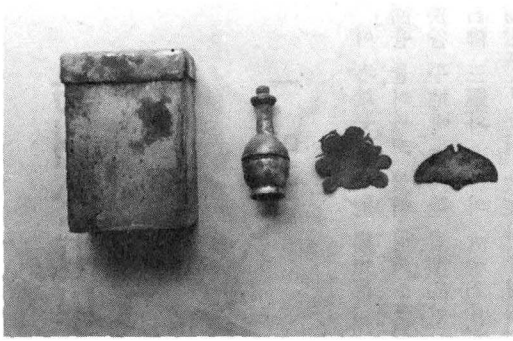
圖版 3. 復元된 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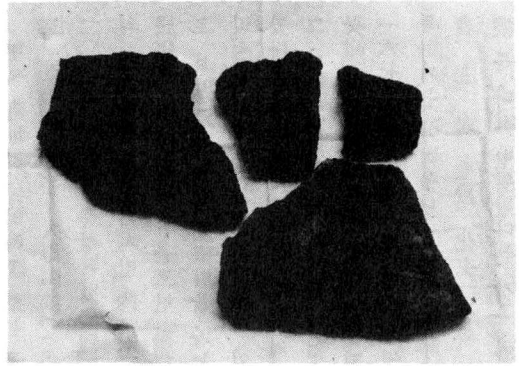
圖版 4. 版築의 地盤을 변형시키지 않고 結構한 地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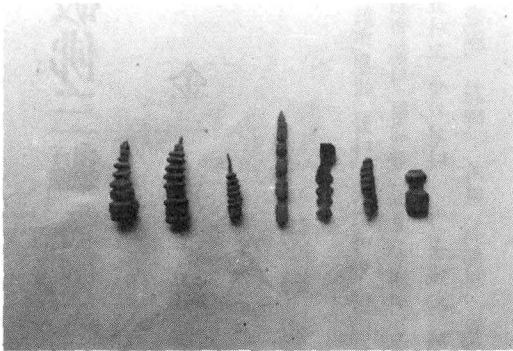
圖版 5. 흙모래가 쌓인 舍利孔과 金銅舍利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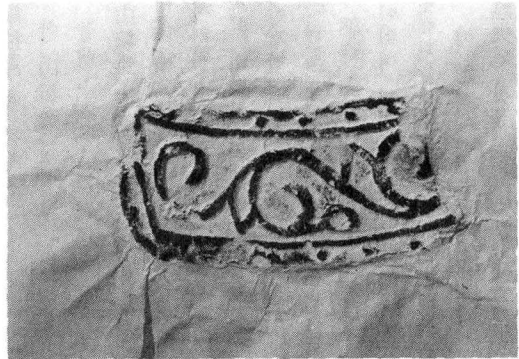
圖版 6. 金銅舍利匣, 舍利瓶 및 蓮花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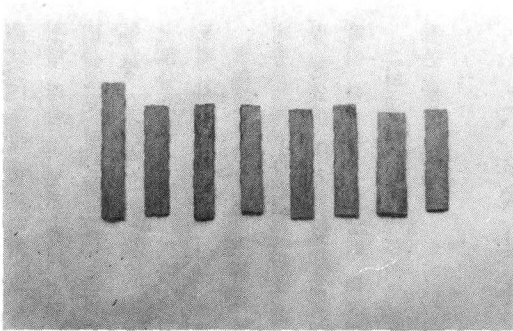
圖版 10. 기단부 하대감석 밑에서 發見된 기와편



圖版 7. 舍利孔內에서 發見된 小形木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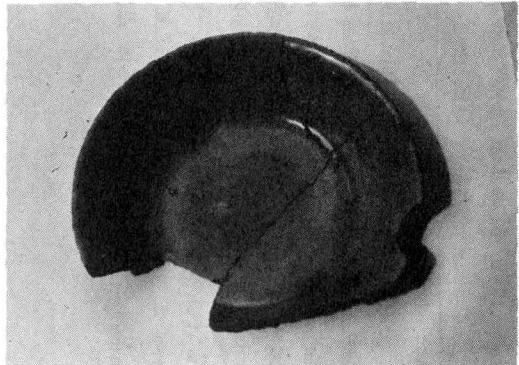
圖版 11. 기단부 하대감석 밑에서 發見된 암막새  
기와편 拓影



圖版 8. 舍利孔內에서 發見된 竹片



圖版 9. 舍利孔內部 모습



圖版 12. 기단부 하대감석 밑에서 發見된 靑磁片